

멕시코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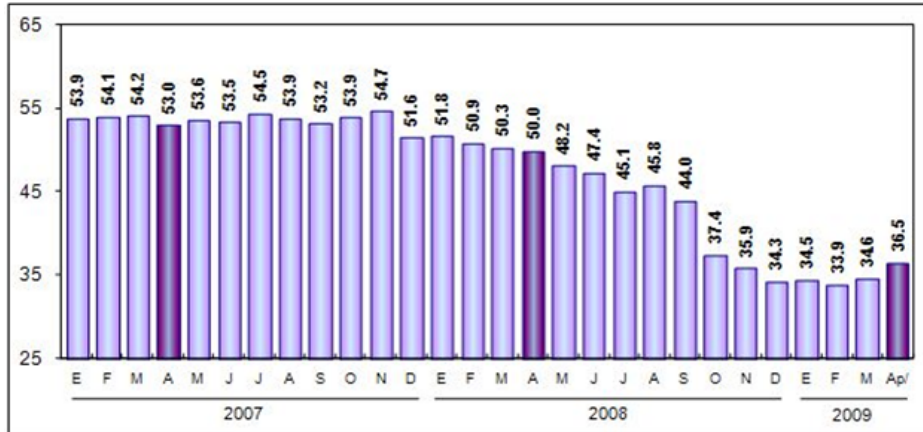
□ 민간부문 경제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- 멕시코 중앙은행이 4월 중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, 국내외 경제 관련 제반 지표를 감안 할 때 당분간 경기 침체 심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
- 이에 따라 금년 1분기, 2분기 및 3분기 추정 및 예상 GDP는 각각 -5.5%, -5.6% 및 -3.5%, 연간으로는 -4%로 전망, 한편 2010년은 1.7%의 플러스 성장 예상
- 전문가들은 멕시코 경제 성장의 장애 요소로 대외여건 악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(응답자의 28%), 다음으로 내수시장 약화(16%),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 부족(12%), 국제금융시장 불안(11%) 등을 지적

□ 제조업 부문 관련 지수

- 제조업 분야 주요기업의 경제 현황 및 전망, 자사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4월 멕시코 제조업신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.5p나 감소한 36.5p를 기록
- 그러나 전월대비로는 1.92p가 증가했으며 최저치인 33.9p를 기록한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 시현
- 한편, 주문, 생산, 재고 및 고용 부문 요소를 감안하여 산출된 제조업구매지수는 43.7p로 전년 동월대비 8.9p가 감소했지만, 2008년 12월 이후 개선 추세

제조업 신뢰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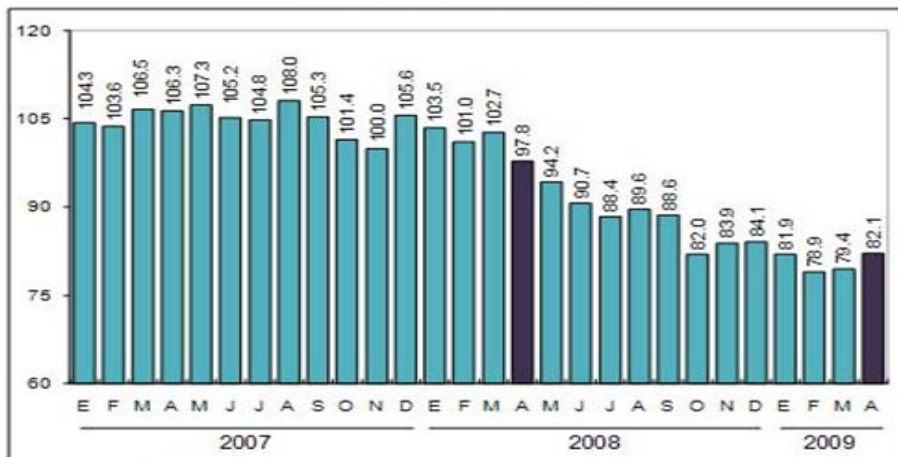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소비자신뢰지수

- 멕시코 중앙은행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금년 4월중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6%가 감소한 82.1(2003년 100 기준)을 기록했는데 1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 모습 시현

소비자신뢰지수 추이(2003=1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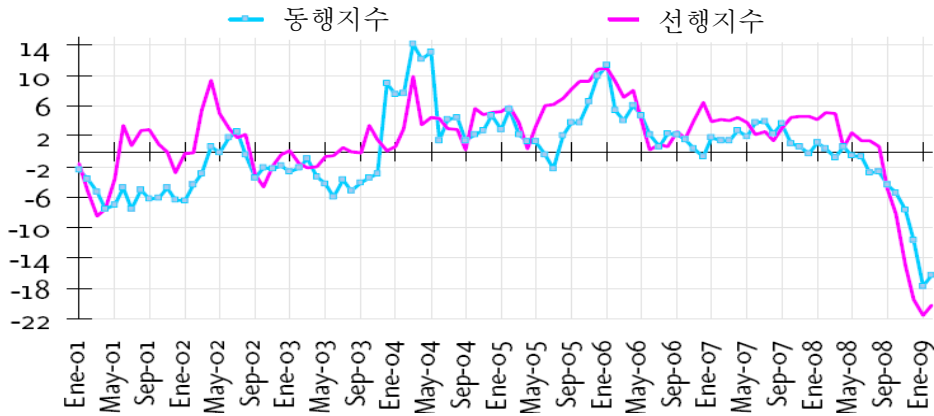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경기종합지수

- 금년 2월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.5%가 감소했는데, 이는 주가지수 하락, 환율 상승, 멕시코산 원유수출가격 하락, 건설부문 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

- 한편 동행지수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정적 지표가 반영되면서 전월대비 0.2% 감소

경기종합지수 증감률 추이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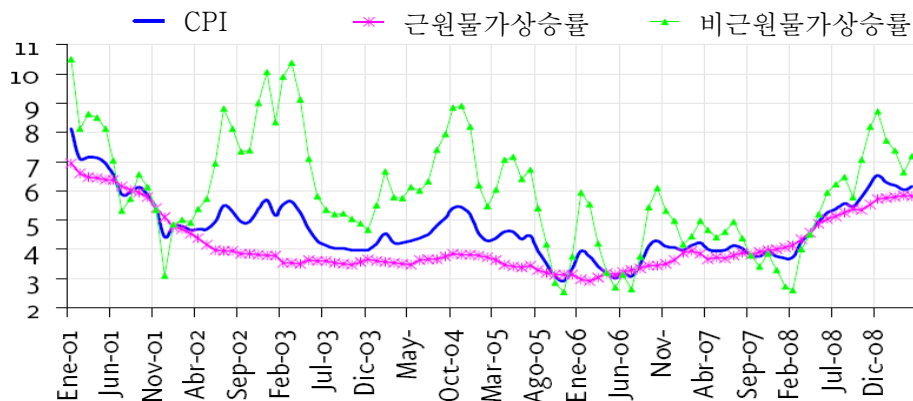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인플레이션

-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4월중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과일 및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상승,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0.35%를 기록, 전월대비로는 0.13%p 상승
- 한편,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1.38%이며, 연말 예상 인플레이션은 6.17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멕시코 물가상승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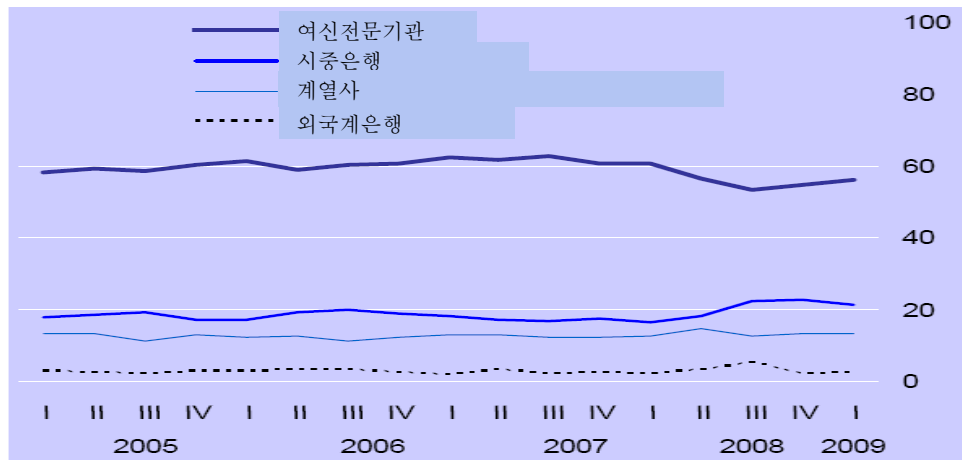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기업 자금 조달

- 멕시코 중앙은행의 1분기 중 기업 자금조달 형태 조사결과, 여신전문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56.2%로 가장 많았으며, 시중은행은 21.3%, 계열사 차입 13.1%, 모기업 차입 3.9%, 외국계 은행 2.6% 등으로 나타남
- 시중은행 차입은 2008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인 이후 감소 추세, 한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은행 여신 축소(49.1%), 금리인상(38.5%), 내수 부진에 따른 차입 수요 감소(20.1%) 등이라고 응답
- 참고로 금융기관 대출종별 비중은 운전자금 64%, 투자자금 19.1%, 채무 재조정 11.0%, 기타 5.9% 차지

멕시코 기업 자금조달처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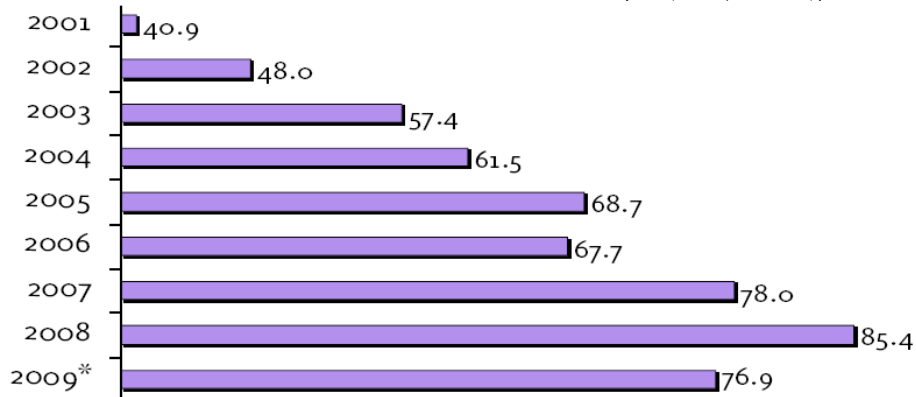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외환보유고

- 4. 30자 현재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을 통한 정부의 달러화 매입, 기타 운용 등으로 전주대비 64.1억 달러가 감소한 768.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전년말 대비로는 85.9억 달러가 감소

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 : 백만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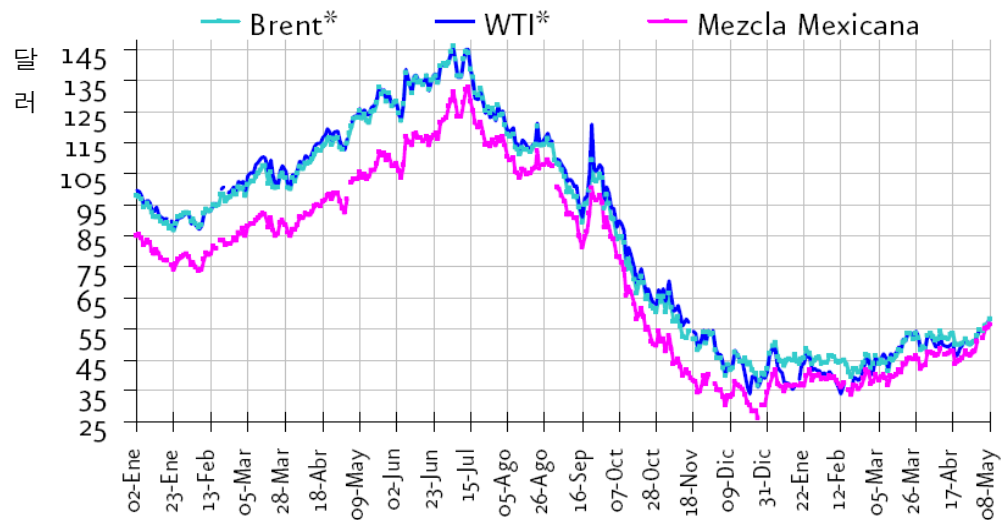
* 2009년은 4월 30일 현재 기준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원유수출가격

- 5. 8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56.38달러로 전주대비 10.94%가 증가하는 등 전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연초대비로는 64.76% 상승했으며, 연중 평균가격은 41.77 달러를 기록
- 한편,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10.23% 및 10.01% 상승한 58.63달러 및 58.14달러에 거래

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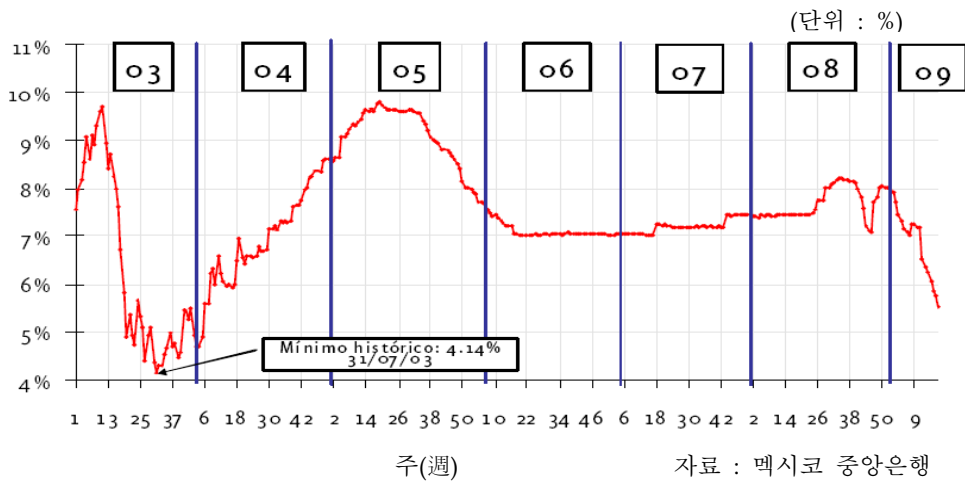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PEMEX

□ 금 리

- 5. 5자 멕시코의 28일물, 91일물, 182일물 기준금리(CETES)는 전주대비 각각 20bp, 29bp, 25bp 하락한 5.54%, 5.42% 및 5.42% 기록
- 한편, 채권 시세는 10년 만기는 7.55%, 30년 만기의 경우 4.32%에 거래

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

□ 주식시장

- 5. 8자 멕시코 IPyC지수는 세계 증시 상승에 힘입어 전주대비 9.99% 상승한 24,085.58을 기록, 연초대비 폐소화 기준으로는 7.62%, 달러화 기준으로는 13.58% 상승

멕시코 주식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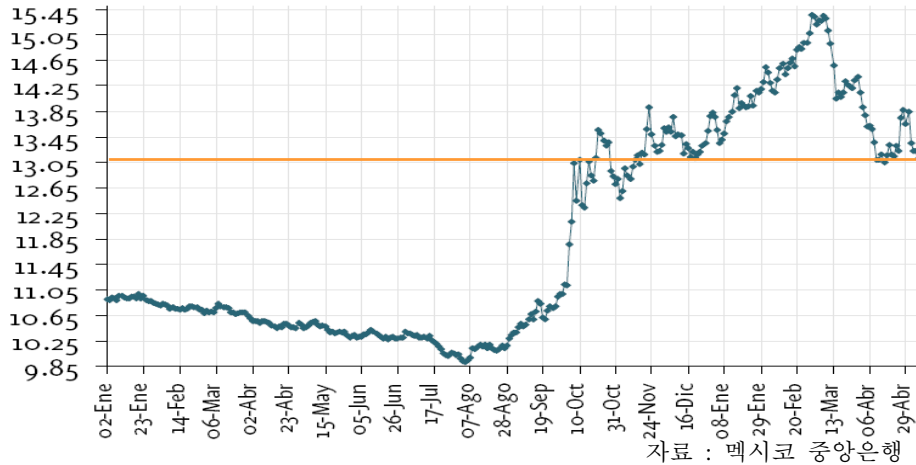


□ 환 율

- 5. 8자 현재 대미 달러 환율은 13.1067페소로 전주대비 73.76센타보가 하락했으며, 금년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72.58센타보 하락한 14.0917P/US\$ 기록

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(2007~2009)

(단위 : 페소/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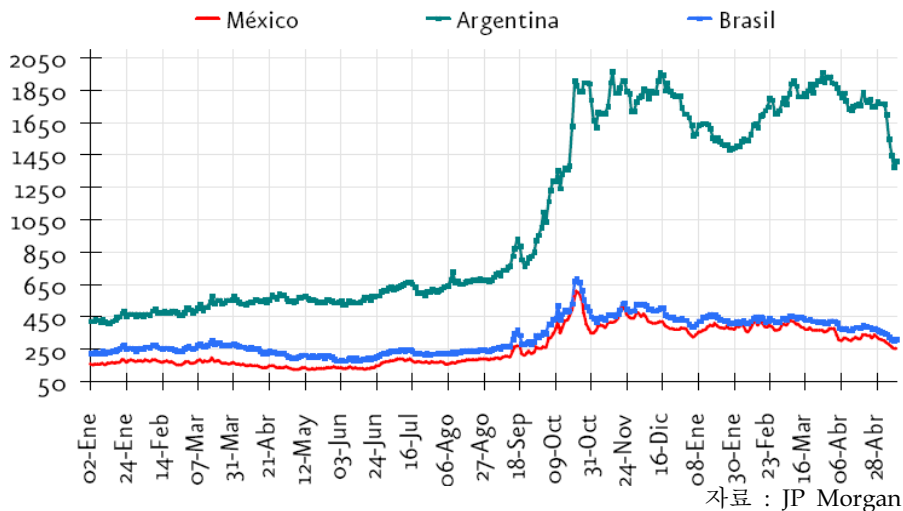


□ 국가위험도

- 5. 8자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개도국 위험지수(EMBI+)는 전주대비 47p 하락한 255p를 기록, 아르헨티나는 355p 감소한 1,409p로 위험도 급감 한편, 브라질도 310p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

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

(단위 : basis point)



기관별 경제 전망

□ 멕시코 중앙은행, 올해 말 인플레이션 4.38% 전망

- 멕시코 중앙은행은 금년 말 인플레 상승률을 4.38%로 하향 조정했으며,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각 3.8% 및 3.68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
□ IXE은행, 멕시코 중앙은행 이달 중순 금리 대폭 인하 예상

- 멕시코 시중은행인 IXE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5월 15일 중 기준금리를 75bp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, 멕시코 경기 침체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경우를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니라고 주장
- 또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비용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

□ Bancomer, 연말 인플레 상승률 3.8% 예상

- 멕시코 Bancomer은행은 4월까지의 인플레 상승률을 토대로 연말 예상률을 5.6%로 전망하고 있으나, 향후 2, 3개월 이내에 동 상승률은 3.8%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발표
- 이는 최근의 환율 안정, 국내 수요 감소,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서비스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

□ UBS,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정부 조치가 환율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 적어

- UBS는 최근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비용 또는 경기 활성화 조치가 동국의 환율이나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
- 또한 동사는 멕시코 정부의 경제 침체 상쇄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멕시코 외환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고 있다고 언급

<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>